

Ayo Adewuya 박사 , 고린도후서 8차, 고린도후서 7장, 긴급 호소

© 2024 Ayo Adewuya 및 Ted Hildebrandt

우야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8, 고린도후서 7, 긴급 호소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으로 마쳤고, 6장 14절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그 구절, 그 여담은 7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섹션은 7장 2절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위대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는 7장 1절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더러움과 오염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으니, 몸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케 하자. 보시다시피, 그 구절은 6:14에서 시작하는 여담을 끝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담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므로, 불행히도 NIV에서는 그러므로가 생략되었지만,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전의 모든 호소를 요약합니다. 그는 이 위대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너희는 또한 내 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약속을 감안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름에 걸맞은 방식으로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사랑하는 친구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는 agapetoi ,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는 바울이 친밀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즐기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6:14와 7:1에서 자신의 서론과 결론적 권고를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매우 느슨하게 구성된 주장으로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윤리적 삶을 요구하며, 우리 자신을 정화하자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고는 명령보다 덜 강력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화 또는 정화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숭배하는 환경, 즉 예배의 환경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 나병을 치료할 때, 정화에 대해 말할 때 사용됩니다 . 하지만 여기서는 도덕적 정화를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장되어, 그는 몸과 영혼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정화하자고 말합니다. 그리스어로 더러움에 사용된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여기서만 사용되는 단어, molusmou 입니다 .

이것은 신약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으며, 이교도의 관습에 참여함으로써 초래되는 도덕적, 영적 오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체와 영을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을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바울은 우리 삶의 어떤 측면도 피, 육체, 영의 정화력으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에 대한 회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지만, 내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는 정확히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되, 다만 너희의 합당한 예배인 합당한 제사로 드리되 세상에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보다시피, 바울은 여기서 육과 영을 반대되는 윤리적 원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여기서 육체와 영을 대중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여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본 전체 사람을 이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존재 전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철저한 도덕적 정화를 요구합니다. 일요 학교에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노래합니다. 내 머리, 내 어깨, 내 무릎, 내 발가락, 내 머리, 내 어깨, 내 무릎, 내 발가락;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속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저는 존 웨슬리가 말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는 성화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당신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이런 종류의 거룩함이 가능할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의 영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와 같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브릿지를 깎으라고 하면서도 짚 한 조각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제 말은, 우리에게 말씀이 제공되었고, 우리에게 영이 제공되었고, 우리에게 피가 제공되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허황된 꿈일까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화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즉, 계획이나 목적에 따라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에게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저는 위대한 설교자 아담 클라크가 그리스도의 온 마음을 영혼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할 때의 방식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위대한 목표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온 마음을 영혼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성한다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장으로 넘어가서 2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교제에 대한 호소를 새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호소의 갱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긴급 호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글을 쓸 당시 고린도인들은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바울에게서 직접 흠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전히 그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메시지는 메신저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메신저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누군가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고, 당신이 그 사람을 도둑으로 알고 있다면, 당신은 글썄, 잊어버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합니다. 글썄요, 그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누군가가 설교를 했는데, 그는 우리가 금식하고, 이렇게 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금식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말하던 그 사람을 보세요. 그의 배가 자신의 벨트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모든 사람에게 금식하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그들이 그를 사람으로 의심한다면 화해하지 못할 위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계속해서 화해의 대리인으로 행동합니다. 이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우리와 화해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가졌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는 선동을 참을 수 없었고, 그는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사이와 신자들 사이에 썩기를 막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사랑과 공유된 신뢰가 특징인 성도의 교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파 내에서 같은 교파를 찾을 수 있고, 그 교파에서 한 거리 떨어진 곳에 두세 개의 교회가 있는데,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은 교파에 속해 있습니다. 서로 한 블록 떨어져 있습니다. 목사들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멤버들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스럽게 봅니다. 그들은 함께 합동 회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호 사랑과 공유된 신뢰가 특징인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는 7장 2절에서 4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에서 시작한 상호 신뢰의 회복에 대한 그의 부름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6장 11절에서 13절에서 발견한 것은 7장 2절에서 4절에서 반복됩니다. 바울은 6장 13절에서 자신의 간청을 반복합니다.

6:13에서 그는 이미 "너희 마음도 넓게 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7장 2절에서 다시 그것으로 돌아옵니다. 이 구절들은 합쳐서 신약에서 동등하지 않은 애정 어린 호소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애정 어린 호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이제, 이 시리즈에 대한 연구의 시작 부분에서 이 책이 바울의 마음을 여는 문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바울의 마음을 여는 창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7:2에서 4까지는 무슨 뜻인가요? 전체적으로 읽어봅시다.

우리를 위해 마음속에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타락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습시다.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당신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나는 종종 당신에 대해 자랑한다. 나는 당신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그리움과 애통함을 우리에게 말했을 때, 나는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기쁨에 넘칩니다 .

내가 더욱 연합하게 하려는 너희의 열심. 보다시피, 7:2-4가 의미하는 바는 바울이 고린도인들과의 화해를 완성하려고 할 때 분명해진다. 그는

고린도에서 아무도 확대하지 않았다는 세 가지 진술로 고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문을 인식하는 듯하다.

그것은 바울이 여전히 약간의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이 구절은 핵심적입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7:2-4는 2:14에서 시작된 바울의 긴 여담을 마무리하고, 이제 2:12에서 2:13에 시작된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번역본은 바울이 6:11에서 그만둔 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에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 번역한 대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고린도인들도 보답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진정한 교제는 공유와 상호성을 필요로 합니다. 두 사람, 두 교회, 두 몸 사이에 교제가 존재하려면 공유와 상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상호 애정의 표현에 매우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여기서 아무에게도 잘못된 적이 없다고 말할 때, 여기서 잘못이라는 단어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상이나 부당한 대우를 수반하는 잘못입니다. 그것은 의로움이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결코 불의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그들을 존중했고, 복음에서 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아무도 타락시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타락이라는 단어는 도덕이나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아무도 잘못된 적이 없다는 단어는 모욕이나 상처 또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단어는 도덕이나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로 복음을 타락시킨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데, 이는 그가 한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행상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아무도 착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착취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가 우리가 아무도 착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2장 17절에서 18절에서 같은 동사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은 흥미로운데, 그는 그들에게서 재정적으로 돈을 빼앗았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풀은 우리가 당신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 우리는 당신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많은 목사들이 오늘 자기들이 회중을 착취하지 않았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우리는 당신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기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당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니다. 사전에서 그렇게 정의합니다. 풀은 다시 동사를 사용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 동사의 효과, 아무도, 아무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인을 구체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이게 만듭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가해진 특정 혐의에 응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그것은 매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는 단순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은 상호 신뢰를 위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정죄하였느냐? 그러면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소유물을 빼앗았느냐? 나는 누구와 함께 속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같은 수준에 놓고 말합니다. 보세요, 나는 그만큼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그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보세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너희 중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실제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흠 없이 처신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그가 한 말을 기억하시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자신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바울이고, 그는 목사가 정직함의 측면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것 바로 이해하세요.

예수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비난합니다. 사무엘이 올바르게 살았지만, 물론 그는 아들과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반항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못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항상 누구에게나 잘못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사를 비난할 수 있고, 누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면서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인들과 오해가 생길 가능성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그들에게 확신시킵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이것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당신에게 가진 것은 당신 이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상호 사랑과 신뢰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당신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 번역한 대로입니다.

그게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살거나 죽을 것입니다. NIV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바울이 단순히 친구 사이의 충성심의 유대감, 침해할 수 없는 유대감에 대한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전환적 다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단어 선택을 살펴보세요.

이러한 선택은 우리를 편지의 앞 장과 편지의 후반에 나타날 주제에 대한 요점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는 특히 주목할 만한 위안, 기쁨, 문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장 3절에서 8절까지와 마찬가지로, 위안이라는 단어와 주제가 이어지는 문단에 스며듭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면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큰 확신을 구합니다. 그는 담대함, 파루시아 에

대해 말할 때 3장 12절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 이는 솔직한 말과 솔직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는 열린 마음과 솔직한 말투로 그들에 대한 큰 자부심을 표현합니다. 이제, 디도서 7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에도 우리 몸은 쉴 수 없었고, 모든 면에서 고난을 겪었으며,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의 도착으로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의 도착으로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을 위로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5~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재개합니다. 이것들은 1장 12절에서 2장 13절까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는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돌아갑니다. 그는 2:14에서 7:4 까지 그의 사역에 대한 긴 괄호로 돌아갔고, 이제 그는 이야기를 재개합니다. 정확히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시다시피,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고통스러운 방문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에베소에서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 슬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 편지가 잘 받아들여지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트로아스로 갔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한 문을 열어 주셨고, 그곳에서 교회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디도를 만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디도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안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이사하여 디도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2장에서 독자들에게 남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사도적 사역에 대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에 굴복하기 위해 여행 이야기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것을 끊게 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모릅니다. 여담은 아마도 자발적일 것입니다.

제 말은, 바울이 항상 하듯이요. 바울이 깨는 곳이 여기만은 아니에요. 그는 로마서 3장에서 깨고, 9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는 항상 그렇게 해요.

바울은 바울입니다. 그렇게 표현해 봅시다. 하지만 이제 5절에서 그는 방금 한 일에 대한 설명을 소개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왔을 때조차 우리 몸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의 불안한 육체를 묘사합니다. 우리 몸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는 우리가 안절부절못한다고 말했고, 4장 8절에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는 우리 몸이 안식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분쟁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바울은 초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입니다. 평온함은 항상 그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안절부절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엇 때문에 안절부절못했을까요? 바울이 디도와 고린도인들에게 한 것처럼 진정한 염려는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진정한 염려를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우리는 사랑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말한다, 하지만 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신.

그는 매우 강한 적대자로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확증합니다.

하지만 신.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볼 때마다 신이 아니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경험은 신이 자비의 아버지이며 모든 위로의 신이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장 3절에서 그가 한 말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낙담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를 위로하시는 디도의 도래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식일 것이다. 외로운 자를 위로하시는 분은 위로하시고,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다.

디도의 존재에 의한 신. 신은 위로자로 정의된다. 바울과 신의 결합은 그가 그의 글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대조를 상기시켜준다.

에베소서에서 말하지만, 하느님. 하느님은 바울의 불안한 절망을 무한한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불안한 절망을 무한한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는 디도의 오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오심으로, 디도의 도착과 그로 인한 임재는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심으로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 바울은 디도를 만났고, 그를 만났을 때 그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찾는 동안, 그는 사방에서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티투스가 왔습니다. 낮아진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티투스의 오심으로 그의 종을 위로하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재회였습니까.

디도는 오직 진정한 친구이자 충실하고 동정심 많은 동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디도는 사도에게 전할 소식이 있었습니다. 디도가 무엇에 대해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위로는 그가 온 것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디도 자신도 자신이 무엇을 만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가 위로받은 위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동료는 사도의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제를 공유하면 문제가 줄어든다고 항상 말하죠. 기쁨을 공유하면 기쁨이 배가된다고요.

일종의 수학 공식, 역변환입니다. 문제를 공유하면 문제가 줄어듭니다. 기쁨을 공유하면 기쁨이 배가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디도가 옵니다. 얼마나 행복한 재회입니까. 바울과 디도 모두 디도가 고린도인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로한 것은 티투스의 오심, 그가 전한 소식, 또는 티투스의 위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글을 쓰면서 여러분의 갈망을 강조해서 언급합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의 오심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갈망으로부터 위로받은 위로를 통해서도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 모든 인간 활동을 신학적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신의 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신이 조종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궁극적이고 중간적인 원인이 무엇이든, 이 모든 것이 바울의 기쁨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인간의 일이 사도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일, 제 말은, 바울은 인간이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울에게 일종의 우울함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과 인간적 행위로 우울증을 들어올리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부터 경건한 슬픔의 결과로 교회의 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비록 잠깐이기는 했지만 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이제 나는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근심이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노라.

너희가 경건한 근심을 느꼈으므로 우리로 말미암아 해를 입지 아니하였느니라 경건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며 후회함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경건한 근심이 너희에게 얼마나 간절히 하게 하였고 얼마나 스스로를 깨끗케 하고자 하였으며 얼마나 분노하며 얼마나 두려워하며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하며 얼마나 형벌하며 얼마나 하였는지 우리가 보노라.

모든 지점에서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고린도인들과 개인적으로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들의 불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불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후회와 함께, 그리고 8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징계 편지를 썼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여기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교회와의 화해를 섬세하게 완성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모든 오해와 의심을 제거하려면 그들의 과거를 공개해야지, 덮어버리거나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알다시피, 당신이 그것을 덮어버리거나 덮어버리면, 그것은 미래의 다툼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고, 때때로 교회가 실수를 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알다시피,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자. 잊지 말자. 이야기하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두 사람 모두 그것에 대해 울거나 울 수 있고, 그러면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것은 더 이상 거기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덮고, 글썄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목회서신이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목사인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이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그들이 그의 슬픈 편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들을 칭찬하고, 그런 다음 그는 그 문제에 대한 그들의 무죄를 확신시키고, 그런 다음 그는 고린도인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파트너이자 그들과 자신을 대표하는 직함을 확립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바울은 신학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와 개인적으로 그와 맺은 관계의 측면에서 그들에게 초래한 고통과 슬픔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그가 실제로 고린도인들을 마음속에 두고 함께 죽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 때문에, 그의 새롭게 된 무한한 기쁨 때문에, 큰 괴로움으로 그들에게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큰 괴로움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록 내가 편지로 당신을 슬프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편지로 당신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큰 고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고통. 아시다시피, 바울은 1.23에서 볼 수 있듯이 취소된 방문에 대해 언급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오직 편지만 언급합니다. 이 편지는 그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자신에 대한 사랑의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칭호를 부여하는 데 동의했지만, 그의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돌아오기 전에 사도는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편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니, 그는 말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편지가 갔을 때, 폴은, 아마 내가 보내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티투스가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아마 내가 그 편지를 보내는 데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편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그는 "그 편지는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미안할지도 모르지만, 편지의 수신이 미정인 동안 그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슬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슬퍼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슬퍼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끌었고, 마음을 바꾸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그 편지가 하나님께서 고린도인들에게 슬픔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쁩니다 . 사도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

이 슬픔의 본질에 대해 바울은 치료적 슬픔과 회개를 구별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며,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그들의 슬픔의 열매입니다. 그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꽤 흥미롭네요. 이걸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회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든 서신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단 4번만 사용합니다.

로마서 9:10, 로마서 2:4, 디모데후서 2:25에서 그가 회개를 명사로 사용하고 동사가 단 한 번 나오는 곳은 고린도후서 12:21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슬픔과 회개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슬픔에 대해 말할 때 슬픔과 회개의 차이점은 슬픔이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기분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분의 변화, 감정의 변화, 태도의 변화이지만 회개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슬픔은 후회나 후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들이 나쁜 짓을 할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라고 말하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2분 후에 그들은 가서 같은 짓을 합니다.

나는 말한다, 오, 미안해, 미안해.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건 경건한 슬픔이 아니야.

제 말은, 어떤 사람들은 잡혔기 때문에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변화라기보다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누군가가 완전히 그리고 완전히 변할 때, 회개보다는 믿음이 바울이 이방인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선호하는 단어였습니다. 유대인 환경에서 초기 교회는 회개라는 용어를 선호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와 12:21에서 바울은 회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 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바울의 용법으로는 회개합니다.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완전히 돌아선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것을 주목해라.

바울의 용례에서 회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용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받아 적은 구절에서, 여러분은 회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믿는 자들을 위해 회개를 사용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슬픔은 하나님을 향한 슬픔이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였습니다. 즉,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슬픔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건한 슬픔이었습니다. NRSV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표현이 9절, 10절, 11절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편지로 인해 영구적으로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영역에서 그들은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런 종류의 슬픔이 하나님에 의해 유발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과 죄의 가증스러운 성격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가하는 그의 마음에 대한 범죄로 보게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완전히 그리고 완전히 돌이킵니다.

바울이 말하는 슬픔은 세상이 경험하는 것과 현저히 다르며, 세상 사람들 안에서 죽음을 일으키는 슬픔입니다. 이것의 큰 가치는 놀라운 혜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은 믿는 이에게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내리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 경건한 슬픔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인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징계로부터 구출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10절에서 그는 다시 그 고통이 경건한 슬픔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그것이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의 종류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 슬픔, 후회, 회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기분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보라, 보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건한 근심이 너희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일으켰는가.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하려는 얼마나 간절함, 얼마나 분노함, 얼마나 경각심, 얼마나 사모함, 얼마나 열심, 얼마나 별함.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죄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것은 같은 동사, 바로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명사를 보세요, 어떤 열망, 어떤 분노, 어떤 경각심, 어떤 갈망, 어떤 처벌, 제 말은,

어떤 열심, 이 모든 명사가 무엇에 의해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매우 강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말은, 알다시피, 바울이 역경 속에서 그것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어떤 진지함이 연결되어 만들어냅니다.

고린도인들은 이제 교회 내의 문제를 처리하고 싶어합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분이 자신을 깨끗이 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깨끗이 하려는 열망입니까.

그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바울이 그들에게 당신이 비난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경각심이 있는지, 저는 그 불행한 상황이 바울과의 관계와 교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12절에서 16절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왜 슬픈 편지를 썼는지 설명합니다. 왜, 왜 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잘못을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고통스러운 사건은 슬픈 편지를 쓸 계기가 되었지만, 바울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의를 환기하거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항의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저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다친 사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폴은 자신을 위해, 자신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영적 성실성이 위태로웠습니다. 바울이 기분을 상하게 한 것보다 더 위태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의 문제는 이미 고린도인들의 영적 아버지에 대한 태도에 불충실함과 무례함의 구름을 드리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바울과의 관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바울과의 관계가 얽혀 있었고, 그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누군가가 폴을 불쾌하게 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자신의 위로에 더하여, 우리는 디도의 기쁨에 더욱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 의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이제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궁극적인 영적 안녕을 너무나 염려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덜 고통스럽지는 않지만요.

그러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일종의 회개를 낳아 구원으로 이끌고 교회 내의 어려움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디도의 기쁨에 대해 더욱 기뻐합니다. 보세요, 디도는 분명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3절 후반부부터 16절 끝까지 디도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디도의 보고에 대한 그의 반응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7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슬픈 편지에 대한 고린도인의 반응을 고려했습니다. 그것은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6절에서 7절의 생각을 다시 꺼냅니다. 그는 고린도에서의 디도의 경험에 새로운 주의를 기울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바울은 디도가 자신에게 준 위로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는 디도가 고린도에서 받은 긍정적인 환대에 대해 그의 대표에게 미친 호의적인 영향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디도의 기쁨에 더욱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여러분 모두에 의해 상쾌해지고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특히 디도가 고린도를 방문한 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디도의 영이 온 교회에 의해 상쾌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교회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안정시켜 주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바울이 "여러분 모두"라고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는 문제들을 편리하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여러분 모두라고 말합니다. 6장 1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남아 있는 문제들은 불평등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었다. 그는 우리가 여러분 모두로부터 상쾌해졌다고 말했다. 폴은 행복했다.

그런 다음 14절에서 바울은 그의 기쁨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내가 그에게 여러분에 대해 다소 자랑했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모든 말이 참된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참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보인 영에 의해 영감을 받은 사랑의 진실은 그들이 그를 돌보는 진실성에 스며들었다. 바울은 개종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시 한 번 말해보자.

하나님은 그의 개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낙관적이고 항상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계속해서 입증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이 그들에 대해 자랑한 것은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알다시피, 고린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그들이 디도를 영접한 것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디도가 고린도로 여행하면서 느꼈을 우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로부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디도가 확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고,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그를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을 새롭게 했고 바울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바울의 예언은 그가 그들에게 말하고 쓴 말처럼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디도 역시 고린도인들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에게 보인 존경심과 바울의 편지에 대한 순종을 기억할 때마다 그의 사랑이 그들에게 넘쳐흐를 정도였습니다.

독자들에 대한 폴의 확신은 정당했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확신은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5절을 보세요. 디도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과 자신을 받아들인 데 대한 순종을 기억할 때, 그들에 대한 그의 애정은 더욱 커집니다. 15절에서 그것이 매우 분명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는 매우 기뻐고,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고 여러분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환영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마음은 더욱 여러분에게로 갑니다.

흥미롭네요. 제 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라는 이 문구는 신약에서 바울만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울만 사용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고린도인들이 공동체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아니라요. 두려움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는 복수형입니다. 그 구원은 단수형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그들의 구원을, 교회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함께 걸어가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구약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서 읽듯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성한 위엄 앞에서의 적절한 인간적 입장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보호 능력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도의 대표로서 그들 가운데 디도가 있는 것에 대한 고린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제 말은, 바울이 이사야 19장 16절을 암시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가 하나님의 들어올린 손을 알게 되었을 때 이집트가 겪게 될 공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림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디도를 사도의 정통하고 권위 있는 대표자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신성한 메신저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책임을 붙잡았기 때문에 더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주저하는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 적절했습니다.

제 말은,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그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의 자신감은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나는 너희를 온전히 신뢰하므로 기뻐하노라. 바울은 다시 기쁨이라는 주제를 다시 언급합니다. 즉, 이 구절에서 이미 4절, 7절, 13절에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고린도인들과의 화해가 효과적이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기쁩니다. 나는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고린도인들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말은, 이건 매우 설득력 있는 수사학입니다. 바울은 8장에서 9장에 나올 요청에 대한 토대를 의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8장에서 9장에서 바울은 헌금과 헌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바울은 설득력 있는 수사학으로 강력하게 마무리하면서 8장과 9장에 나올 내용에 대한 토대를 의도적으로 마련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이전의 고통스러운 방문과는 대조적으로 기쁜 방문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완전한 확신은 어느 정도까지 잘못된 것일까요? 글썄요, 우리는 아마도 고린도후서 10-13장에서 여전히 직면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그는 완전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는 고린도인들이 실제로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바울의 헌금을 지지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암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서신의 첫 번째 부분을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합니다. 매우,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더 많이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추구하는 기도에 응답하려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기쁨에 대한 감각은 그가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의 완전한 안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3-14절에서 그의 동료 보행자이든 15-16절에서 그의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든, 고린도인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그들에게 그의 마음과 삶의 개방성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고린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작용한 데서도 비롯됩니다.

그는 또한 사악한 외부의 영향에 방해받지 않을 때 그들이 그에게 보이는 진정한 태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듯이 그들도 바울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야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8, 고린도후서 7, 긴급 호소입니다.